

인각사 지키자 '여론승리'

전교부, 군위담 계획 변경...수몰위기 벗어나

〈삼국유사〉의 산실 군위 인각사(사적 374호)가 담건설로 인한 수몰위기에 처해 있다. 문화재관리국은 이 공문에서 건설교통부는 3일 "군위담의 정확한 규모와 위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사전조사시 문화재 보호차원에서 인각사 보존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문화재관리국에 보냈다. 이것은 문화재관리국이 5월2일·22일 2차례에 걸쳐 전

교부에 보낸 인각사관련 공문에 대한 회신이다. 문화재관리국은 이 공문에서 "인각사는 보각국사탑과 비가 보물(28호)로 지정되어 있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곳이며, 이를 살리자는 국민들의 민원이 빚발치고 있다"며 문화재보호차원에서 협조를 요청했다. 수몰위기에 처한 인각사를 살리려는 노력은 지난해 12월

주지 대원스님을 비롯 지역주민들의 담건설 반대 광기대회로 부터 시작돼 정국적으로 확산됐다. 하이텔, 나무누리 등 PC 통신에서는 '인각사 살리기' 대화방과 서명운동이 활발히 전개됐고, 대원스님과 관련단체들은 군위담건설 반대촉구결의안을 작성해 관계부처에 보냈다. 본지를 비롯 교계언론과 일

간·월간지들도 인각사 보존운동에 적극 동참했다. 〈본지 104호 15면·129호 2면 참조〉 인각사 대원스님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위대한 민족문화유산인 〈삼국유사〉의 산실 인각사가 수몰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기석 기자)

해인총림방장 법전스님 추대

교육원장에 암도스님...원로의원 7명 추천

조계종 제127회 중앙총회(의장 설정)는 9일 해인총림 해인사 방장에 법전스님(세수 71세, 법랍 62세)을 추대하고, 원로의원으로 법전(해인사)도원(과계사) 녹인(직지사) 보성(송광사) 정천(문수암) 종산(화엄사) 청무(신륵사)스님을 추대했다. 또 교육원장에 암도스님(前교인장)을 선출 <관련인터뷰 3면>했다.

해인사 방장 법전스님은 지난해 10월 산중총회서 방장에 추천, 만7개월여만에 추대됐다. 스님은 26년 경북 금릉생으로



설재스님을 은사로 입산 35년 백양사 설호스님에게 사미계 48년 만공스님에게 구족계 52년 백양사승가대학을 졸업했다. 또 81년 중앙총회의장 82년 총무원장 84년 호계원장 86년 본사주지연합회 회장을 맡았다.

보리수마을 운영 '암초'

22억 부채 해결 불가능...입주자 생활고 조계종 '60억 대출 보증' 진위여부 논란

불교심바타운 양양 보리수마을(이사장 명신스님)이 운영난으로 부도위기에 처한다. 부채무관계를 맞들려 또다시 교계의 쟁점이 되고있다. 보리수마을은 현재 80여세대가 입주했고, 50여세대가 계약금만 낸 상태로 입주자들의 생활비 충당도 어려운 실정이다. 또 총 320여세대가 모두 분양돼 2

백32억원의 부채를 상환할 수 없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특히 대한부동산신락에서 60억 원이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이사장 월주스님 명의로 대출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책임관계가 쟁점이 되고 있다. 이는 조계종 총무원이 대출시 사용된 이사장직인이 대출시 사용된 이사장직인이 대출된 것이라며 11일 부자신락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12일 경찰



'초조본 대비파사론' 국보지정 대상

문화체육부는 지난 2월23일과 4월23일에 지정 예고된 해인사 불인대장경의 저본이 되는 성보보호재단소장 초조본 아미타 대비파사론(初調本 阿彌陀佛 大觀變沙論·사진)을 국보 지정 대상으로 결정했다. 또, 월인석보(보물745~9호)를 비롯 광덕사소장 조선시대 사경(보물1246호), 해인사 대적광전 출처4년명 동종(보물1253호), 보림사 목조사천왕상(보물1254호) 등 총 12점을 보물로 지정했다.

백양사-장성군

전남도 중재나서

장성군(군수 김홍수)의 백양사 학대행정과 관련 전남도와 국민회회가 중재에 나섰다. 전라남도 허경만 도지사는 5일 백양사주지 지선스님과 면담한 자리에서 5월 29일부터 6월 3일까지 실시한 장성군에 대한 도감사 중간보고결과 백양사 학대행정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허도지사는 "윤문암암 등 무원장 84년 호계원장 86년 본사주지연합회 회장을 맡았다."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실천불교승가회 청와 효림 법안 일로 스님은 10일 국민회의 조세형 총재권한대행은 방문, 백양사건 자료를 전달하고 당사원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조세형권한대행은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들은 국민회의 불자모임 연동회 간사 조성준의일을 만나 연동회 차원의 해결을 당부했다. 이어앞서 장성군은 백양사를 비난하는 공방주씨(문화공보실 홍보계장) 기고문을 수록한 근거지인 '장성21'을 2만부 발행해 3일 일제히 배포했다. 이에대해 백양사는 "가치없는 일"로 일축했다.

조계종 땅 42만여평 7년간 지역개발 수용

조계종 전국사찰 토지 가운데 1백41만5천13㎡(42만7천4백28평)이 90년부터 96년까지 정부 등 공공기관에 의해 수용됐다.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수용된 토지보상금은 총 2백2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사실은 총무원이 중단보유토지 전산화작업 과정에서 밝혀졌다.

불교문화 테마여행 6월 - 부석사·희봉사



녹원전법상 등 불화 2점 日서 반입

석가모니 일대기를 담은 '녹원전법상(鹿野轉法輪相)'(사진) '수하왕마상(樹下降魔相)' 등 조선중기로 추정되는 대형불화 2점이 일본에서 반입돼 11일 공개됐다. 공광화림(대표 공창호)이 구입한 이 불화들(각 가로 140cm 세로 190cm)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를 8폭으로 담은 광상도중 6번째와 7번째 그림. 녹원전법상도는 부처님 설법의 실제적 모습을 담고 있다.

특수전학교 웹불교육 '파문' 19편

시방세계-'萬人講' 작가 고은 9편

佛 손타크신부 '불교예찬' 15편

불자로서의 자부심

..... 삼보기업이 지켜줍니다.

● 삼보기업 기획 시리즈 - 고타운 분에게 불자로서의 마음을 전합니다.

● 불자로서의 자부심을 지켜줍니다. - 신도님들께 전하는 스님의 마음



관음정사



관음정사

■ 신묘장구 대다라니 액자시계 - 정가 : 35,000원

제품사양

크기 : 가로 40cm × 세로 40cm
재질 : 원목 사용, 무변금분 사용, 원목위에 사찰명 기재가능

부처님자비 광명이 온누리에

주 소	시 구 동 번 지 반
성 명	
사찰명	TEL

▶ 불자 가정 문패

항상 좋은날 되소서

연락처

▶ 불자 차량 안내판



▶ 금분인쇄 음마니 반메울



▶ 금분인쇄 반야심경

※ 불교상품 전문 제작업체 - 정성을 다하여 성실히 하겠습니다.

삼 보 기 업 주소 : 서울시 중구 오동동 2-2 방원 B D 4층 Tel. 021279-2715 Fax. 021275-3739